

다니엘 41 강

다니엘서 11 장 들어갑니다. 1 절부터 4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메데인 다리오의 첫째 해에 나 곧 내가 서서 그를 지지하고 힘을 돋우어 주었느니라. 이제 내가 진리를 네게 알려 주겠노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아직도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요하게 될 것이라. 그의 부로 인한 힘으로 그가 그리스 나라를 대적하며 모든 사람을 선동할 것이라. 한 막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다니엘서 11 장이 보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전체적인 뜻을 깨달으면 어렵다고 할수 없습니다. 왜 어렵다고 하나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만 봐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이루어졌어요. 11 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시리아와 이집트, 북쪽 왕국이 시리아이고 남쪽 왕국이 이집트예요, 그 나라 간의 전쟁과 세력 다툼과 이런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그대로 이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들 결론 내리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이거는 다니엘서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핵심이 뭔가면 70 이레 가운데서 마지막 한 이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끝난 것이다. 다 끝난 것으로 아니까 별게 없어요. 로마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도 이미 끝난 것이라 그러거든요. 서기 70 년에 이미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도 더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그약 같은 것은 볼 필요가 없고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예언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앞서 10 장 14 절에서 봤지만 주의 천사가 훗날들에 네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 있기 때문이라. 많은 날동안 훗날 동안. 다니엘이 혼절한 이유가 그 마지막 7 년 환란때 야곱의 고난 때 백성들이 받을 고난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그렇게 한거거든요. 이거는 먼 장래 일이라. 다니엘이 9 장이나 10 장을 기록한 연대는 B.C 534 년 경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 530 년 정도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욱 62 이레 될 때에 결국은 기름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 성취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도 과거 사건으로 돌리고 그것도 상징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니깐 성경이 볼 것이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대환란에 대한거라든가 천년왕국에 대한 거라든가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11 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가깝든 멀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예언의 일부가 이미 지난 날에 이미 이루어졌고 일부는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나머지 일부는 앞으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일들이란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앞에 10 장 21 절에서 주의 천사가 진리의 성경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적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다니엘이 봤던 성경 안에는 없었죠? 이거는 하늘에 있는 성경을 얘기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볼수가 있는데 결국 지금 11 장에 기록된 책은 남쪽 왕 이집트 그 당시에 프톨레미 왕조, 북쪽에는 셀루로스라는 왕조가 있는 시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시리아 남쪽에 이집트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게되면 이스라엘은 당하게 되어있어요. 옛날 한국이 일본하고 청나라가 전쟁을 하게되면 한국이 발판이 되고 또 러일 전쟁때도 한국이 밟고 지나가는 발판이 됐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우리 역사에서 어느 왕 때 어떻게 저쩌고 하는 내용을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루어진것만 우리가 알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아 이거는 끝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줬다는거 이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사람들은 성경이 미래의 역사라는 걸 모릅니다. 지혜의 영이 없으면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보통 성경을 보고 비판하는 학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거죠. 디모데후서 3 장 16 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예언은 베드로후서 1 장 21 절 보면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와꾸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니 영원한 성령 안에서 그 하시는 말씀을 들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으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때 선지자들 속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그 성령은 양자의 영이 아니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역의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느정도 역사를 했냐하면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낱습니까? 그것을 생각했다면 그 말을 못해요. 그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영을 통해서 바로 자기의 마음을 안
 거치고 입으로 나간 거예요. 대개 학자들이 뭘 들으면 자기 맘에서 요걸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배웠으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신학자들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자기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라고 준거지 따지라고 준게 아니죠? 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게
 믿어져요. 가장 큰 고통이 뭔가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은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부르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게 깨달아 지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끝까지,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좀 하죠?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거의 100 살이 될때까지?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게 아무나 믿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자를 불러 가지고 의롭게 하셔 가지고 영화롭게 하신 다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모르니까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거는 하나님이 죄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들을 미리 얘기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시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시편 12 편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 시편 12 편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순수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들이라 그랬죠? **[흠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일곱 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 하시리이다.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이 비열한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습니다. 이 세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개역에 보면 말씀들을 간수한다는 것을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바꿔놨어요. 앞에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그걸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구절을 지워 놨단 말예요. 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열한 사람들 악인들이 도처에 횡행한다. 그들이 높임 받는다. 그대로 예언대로 된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된 예언의 말씀들을 대할 때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될 점은 어떤 예언이 설사 과거에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료된게 아니라 과거의 사건 하나하나가 모형이 되어서 이 교회 시대에 하나하나 실현이 되기도 하고 또 대환란 때 실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 바벨론이나 앗시리아나 이집트나 로마, 히틀러. 역사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게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율법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준 것이죠. 69 이레동안에 그들이 받을 고난을 통해서 진짜 마지막 한 이레에 진짜가 나타날 때 받을 고난을 이야기 한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한 이레에 대환란에 일어날 일을 집중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전체를 보게 되면 아 끝난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초림했을 때 그들이 주님을 영접을 했다면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가 될 뻔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믿는가하면 구약에 말라기서에 보면 주님이 오실때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나타나니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이 최악 내려와야 할텐데 안내려 오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한보고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는데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실려고 그렇게 하신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다 말하니까 마태복음 11 장 14 절에 **[만일 너희가 그 사실을 받은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그사람이다.]** 만약에 자기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요한이 엘리야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요한계시록 11 장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오죠. 말라기서 4 장 5 절보면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구약의 예언이 초림때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다가도 어떤 이유로 재림 때로 연기됨으로써 초림 때나 교회시대 때 성취되지 못한채로 재림 때까지 유보되 있다는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이 엘리야다 그러셨죠.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될 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앞으로 될 일을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될 일이 휴거고 환란이고 천년왕국 아네요? 거의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서론적으로 알고 이 말씀을 공부해야만 이게 깨달아지죠. 어떻게 보면 11 장 말씀은 전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 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메데인 다리오의 첫째 해에 나, 곧 내가 서서 그를 지지하고 힘을 돋우어 주었느니라.]** 그는 미카엘을 얘기하죠?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사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군대장관이죠.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방해할때 가브리엘 천사를 도우러 왔던 그 미카엘 천사장이죠. 다리오 왕 첫째 해에 주의 천사장의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점은 말이죠. 아직 페르시아가 건재한 때였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때까지 계속해서 고관직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는 아직도 세계 강국으로 나타나기 전이었습시다. 그리고 나서 보면 **[아직도 페르시아에서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요하게 될 것이라. 그의 부로 인한 힘으로 그가 그리스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선동할 것이라.]** 페르시아에서 일어날 왕들 중에 네째는 이전에 왕들보다 더 부유하게 될 것이다. 부에서 나오는 국력때문에 그리스를 압박해가지고 더 강화될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페르시아의 네째 왕은 다리오 대제를 말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역전제를 사용해 가지고 역마를 상주시켜 가지고 중앙 정부의 명령을 일일이 하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도로를 가지고 상업이 잘되도록 했고 그래 가지고 전쟁때 그 도로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했고 화폐제도도 만들고 금화도 주조하고 굉장히 부요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를 원정할 정도로 그러한 강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막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린다.]** 페르시아의 막강한 왕으로는 고레스, 아하수에로도 그랬고 이런 왕들이 막강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한 막강한 왕이 나중에(다리오왕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 막강한 왕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 죽자 네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나중에 로마로 됐죠? 4 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설때 그의 왕국이 부서질 것이며 하늘의 네 바람으로 나뉘지게 되리니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또 그가 통치했던 자기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는 그의 왕국이 뿔혀서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지난 번에 8장에서 숫양과 숫염소를 봤죠? 거친 숫염소는 그리스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라. 알렉산더죠?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서 네 뿔이 났다고 그랬죠? 이게 네 왕이 나오죠?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네 왕국이 그 민족에게
 일어날 것이니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게 8 장 21,22 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렉산더
 왕이 죽자 그리스가 넷으로 분열이 됐죠? 그런데 알렉산더 후손 중에는 아무도 그리스의 네 왕국중의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기보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알렉산더는 30 세 정도에 갑자기 죽었어요.
 병사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실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
 졌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루어진 역사 가지고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걸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지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평생 지을 죄까지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믿더라고. 이걸 안믿어요.
 제가 멕시코에 갔을때도 전도했던 한 청년이 그래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죄를 짓거든. 그래서 난 예수 안믿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예수 믿어도 또 죄를 지을텐데.
 복음을 안가르쳐서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5 절 보면 **[남쪽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욱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권세가 큰 권세가 되리라.]**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이제는 네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나라는 북쪽 시리아와 남쪽 이집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촛점을 또 두 나라로 맞추는 거예요. 시리아와 남쪽 왕 이집트. 둘 중의 하나는 더욱 강하게
 된다. 그의 권세가 큰 권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10 장 14 절에서 봤죠? 다니엘에게 훗날 네 백성에게
 닥칠 것을 내가 예언해 주려고 왔노라. 다시 말해서 주의 천사는 이스라엘에게 닥칠 것만을 예언해 주려
 오셨기 때문에 네 왕국이 있어도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는 시리아와 이집트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제껴놓고 두 나라를 가지고 북쪽 왕과 남쪽 왕으로 해서 말씀이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 왕국만이, 영광스런 땅이 어딘가 하면 바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영광스런 땅이죠.
 앞으로 주님 오실 땐 영광스런 땅으로 되죠? 이것이 직접 두 나라가 팔레스타인 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드라키아 이런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리아와 이집트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남쪽 왕은 그 당시 이집트 그때에는
 파라오가 없었어요. 푸톨래미 왕조를 말하는 것이고 북쪽왕은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를 얘기하는 것이란걸

알아야 됩니다. 역사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 패권을 다투는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계속해서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게 11 장이 가장 어려운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통과하고 12 장 끝나게 되면 이제 훨씬 알게 되고 계속해서 이 말씀 저 말씀 공부하다 보면 연결이 되가지고 확실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그래요. 장래 일을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1 년동안 말씀들을, 그럴려면 주님이 내년에는 안오셔야 되는데... 아무튼 1 년동안이라도 말씀을 살실히 자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이 내게 와요. 그래 가지고 눈이 훨씬 열려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면 요만한 것 가지고 미혹안 당하고 절대 마귀에게 시험 안당하고 대장부처럼 십자가의 군사가 될텐데. 내년에는 좀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그러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 주십니다. 준비가 되어야 보내 주시죠. 그래가지고 보내져야만 이 교회가 단단한 교회가 되지 우루루 있다가 보내지면 모래성을 쌓는게 되버리고 말아요. 사람들이 다들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수천명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것 저것 하다보면. 사람들은 오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오면 안돼요. 구원 받을 사람들이 와야죠. 교회는 주님이 부른 사람이 와야 되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건데 너무나 그냥 단시일내에 뭘 할려고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당장 일확천금을 할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옷장사를 할려면 단추 공장 들어 가가지고 단추 만드는 것부터 배우더라고요. 와이셔츠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와이셔츠만 잘 만들면 배도 만들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회사가 와이셔츠로 시작한 회사거든요. 지금도 배를 만들고 있지않습니까? 이게 뭔가하면 섬세한 일 아주 작은 일을 잘하면 점점 더 큰 일을 잘하는데 먼저 큰 것부터 할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다 쫓딱 망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급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합시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먼저 여기에 왔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도 깨닫도록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눈이 확 열려서 앞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왕국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 확실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소경이 되지 않고 모두가 다 말씀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왕국이 보일 때 이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과 어려움과 사단의 시험과 미혹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절대 복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